Ⅰ.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8년 2/4분기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미국(4.2%), 일본(3.0%), 중국(1.8%)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유로지역(1.5%)의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함

- ○ 미국은 민간소비 증대와 수출 증가율 상승으로, 일본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 ○ 유로지역은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상승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100.0을 기록함
- ○ 무역규모 증가율은 신흥국의 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다소 하락한 3.7%를 기록함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여 3.6%를 기록함

□ 2018년 2/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다음과 같음

- ○ 미국 국채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중국 국채금리는 하락하였고 일본과 유로지역의 국채금리는 다소 변화함
- ○ 국제유가(두바이 73.5달러/배럴, WTI 69.9달러/배럴)와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200.1)은 모두 상승함

■ 2018년 2/4분기 미국, 일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하였으나,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2.0%p 상승한 4.2%(연율)를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8%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3.9%p 상승한 3.0%(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 등으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1.5%(연율)를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1)]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1)]	3.2	3.8	n.a.	n.a.		n.a.		n.a.	
선진국[1)]	1.7	2.3	1.8	2.5		2.6		2.1	
신흥국[1)]	4.4	4.8	4.2	5.2		5.3		5.2	
미국[2)]	1.6	2.2	1.8	1.8	3.0	2.8	2.3	2.2	4.2
중국[3)]	6.7	6.9	1.6	1.5	1.8	1.8	1.6	1.4	1.8
일본[4)]	1.0	1.7	0.9	2.7	2.0	2.3	0.9	-0.9	3.0
유로지역[5)]	1.9	2.4	3.1	2.7	2.8	2.7	2.6	1.6	1.5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국내총생산 지표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연율화한 것임. 단,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 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2018. 1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9)
3) 중국 국가통계국(2018. 7)
4) 일본 내각부(2018. 9)
5) Eurostat(2018. 10)

■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1]는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승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100.0을 유지함

○ 미국은 전분기보다 0.1 하락하고 유로지역은 0.4 하락한 100.0을 각각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2 하락한 99.8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나타냄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4 상승한 99.3을 기록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1]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2]	99.6	100.1	99.8	100.0	100.1	100.1	100.1	100.0	100.0
선진국[3]	99.6	100.1	99.8	100.0	100.1	100.2	100.3	100.2	99.9
미국	99.1	99.7	99.3	99.6	99.6	99.7	99.9	100.1	100.0
유로지역	100.0	100.4	100.0	100.2	100.4	100.6	100.7	100.4	100.0
일본	99.7	100.1	99.9	100.0	100.1	100.2	100.2	100.0	99.8
중국	100.1	100.0	100.4	100.4	100.3	99.9	99.3	98.9	99.3

주: 1) 2007년 1월=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신흥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증가율 하락으로 2018년 2/4분기 3.7%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p 하락한 2.8%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5.0%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함

- 국제적 통상마찰과 정책의 불안정성은 기업의 자본 지출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투자 및 수요 둔화는 무역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음[2]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2) IMF(2018. 10), *World Economic Outlook*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1.5	4.6	2.2	4.1	4.3	5.2	4.7	4.3	3.7
선진국	1.6	3.7	1.8	2.4	3.5	4.1	4.8	3.9	2.8
신흥국	1.3	5.9	2.8	6.6	5.5	6.7	4.7	4.8	5.0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 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8년 2/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동반 상승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 전분기 수준임

○ 두바이 현물 가격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 가격은 전분기보다 각각 8.5, 6.1 달러 상승한 배럴당 73.5, 69.9달러이고, CRB 상품지수[3)]는 5.1 상승한 200.1을 기록함

- 유가 상승의 원인은 베네수엘라 원유생산 감소, 캐나다와 리비아의 산유량 감소, 미국의 이란 제재 등에 따른 국제적인 원유 수급 우려임[4)]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1)](%)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2017			2018			2017			2018	
	연간	3/4	4/4	1/4	2/4		연간	3/4	4/4	1/4	2/4
세계	3.9	3.7	3.8	3.6	3.6	두바이 현물 가격[2)]	53.7	52.2	61.1	65.0	73.5
선진국	1.7	1.6	1.7	1.7	2.0	WTI 현물 가격[2)]	51.9	49.7	57.4	63.8	69.9
신흥국	5.3	5.1	5.2	4.7	4.7	CRB 상품지수[3)]	184.0	179.4	187.2	195.0	200.1

주: 1)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2) 단위: 달러/배럴
3) 1967=100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Bloomberg

3)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4) IMF(2018. 10), *World Economic Outlook*

가. 미국경제

□ 2018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 상승 등으로 전분기보다 2.0%p 상승한 4.2%를 기록함
- ◦ 민간소비 증가율(3.8%)과 수출 증가율(9.3%), 정부지출 증가율(2.5%)은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 민간투자증가율(-0.5%)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8년 2/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소매판매 증가율(1.8%)과 소비자신뢰지수(127.2)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 ◦ 산업생산 증가율(1.3%), 설비가동률(77.8%), 경기선행지수(109.6)는 전분기보다 상승하였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8.7)는 전분기보다 하락함
- ◦ 실업률(3.9%)과 취업자 수(65만 1천 명)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및 감소함
- ◦ 소비자물가 상승률(2.7%)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5%)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8년 6월 FOMC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2/4분기 국채금리(3년물 2.61%, 10년물 2.92%)는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함

〈경제성장〉

■ 2018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율 상승 등으로 전분기보다 2.0%p 상승한 4.2%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3.8%)은 자동차 및 관련부품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3.3%p 상승함[5)]

- 감세 효과와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승함

○ 민간투자 증가율(-0.5%)은 전분기 대비 10.1%p 하락함

○ 수출 증가율(9.3%)은 전분기보다 5.7%p 상승하고 수입 증가율(-0.6%)은 3.6%p 하락함

-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이 대폭 감소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국방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1.0%p 상승한 2.5%를 기록함[6)]

5) 남경옥(2018. 7. 28), "미국 '18년 2/4분기 GDP 성장률 결과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6	2.2	1.8	1.8	3.0	2.8	2.3	2.2	4.2
민간소비	2.7	2.5	2.6	1.8	2.9	2.2	3.9	0.5	3.8
재화	3.6	3.7	2.7	1.9	5.6	4.1	6.8	-0.6	5.5
서비스	2.3	2.0	2.5	1.7	1.7	1.4	2.6	1.0	3.0
민간투자	-1.3	4.8	8.1	4.9	5.7	8.8	0.8	9.6	-0.5
설비	0.5	5.3	0.0	9.6	7.3	3.4	4.8	11.5	8.7
주택	6.5	3.3	7.7	11.1	-5.5	-0.5	11.1	-3.4	-1.3
수출	-0.1	3.0	-3.6	5.0	3.6	3.5	6.6	3.6	9.3
수입	1.9	4.6	6.2	4.8	2.5	2.8	11.8	3.0	-0.6
정부지출	1.4	-0.1	0.2	-0.8	0.0	-1.0	2.4	1.5	2.5

주: 전분기 대비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9); BEA

〈소비부문〉

■ 2018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1.8%)은 전분기 대비 1.4%p 상승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127.2)는 전분기보다 0.1 상승함

■ 2018년 2/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9.4%p 하락한 -4.8%를 나타냄

○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5.1 상승한 211.8을 기록함

6) 남경옥(2018. 7. 28), "미국 '18년 2/4분기 GDP 성장률 결과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1] (%)	2.9	4.6	1.0	1.5	0.6	1.0	2.3	0.4	1.8	0.7	0.1
소비자신뢰지수[2]	99.8	120.5	107.8	117.5	118.1	120.3	126.0	127.1	127.2	127.9	134.7
신규주택착공호수[3](%)	6.3	2.6	8.9	-1.7	-4.9	0.1	7.5	4.6	-4.8	-0.3	9.2
주택가격지수[4]	188.7	199.8	191.9	193.9	198.9	202.5	204.0	206.7	211.8	213.8	n.a.

주: 1) 계절조정,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년 1월=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8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7]는 하락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1.3%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0.6%p 상승한 77.8%를 기록함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1.2 상승한 109.6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 대비 1.0 하락한 58.7임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1](%)	-1.9	1.6	0.2	0.2	1.2	-0.4	1.9	0.6	1.3	0.4	0.4
설비가동률[2](%)	75.3	76.1	75.3	75.4	76.2	75.8	77.0	77.2	77.8	77.9	78.1
ISM제조업PMI	51.4	57.4	53.2	56.6	55.8	58.7	58.7	59.7	58.7	58.1	61.3
경기선행지수[3]	100.0	104.1	100.8	102.2	103.3	104.4	106.4	108.4	109.6	110.8	111.2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07년=100
3) 2016년=100
자료: Bloomberg

7)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

■ 2018년 2/4분기 실업률과 취업자 수는 모두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감소함

○ 실업률은 3.9%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0.2%p 하락하였고, 포괄적 실업률 또한 0.4%p 하락한 7.7%를 기록함

○ 비농업취업자는 65만 1,000명으로 전분기보다 4,000여 명 감소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2만 3,000명으로 전분기보다 5,000명 감소함

■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 대비 동반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2.7%)은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하였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2.2%임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하였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1%로 0.2%p 상승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1]	4.9	4.4	4.7	4.7	4.3	4.3	4.1	4.1	3.9	3.9	3.9
포괄적 실업률(u-6)[2]	9.6	8.5	9.3	9.1	8.5	8.5	8.0	8.1	7.7	7.5	7.4
비농업취업자 증감[3]	234.4	218.8	49.2	53.2	56.9	42.5	66.2	65.5	65.1	15.9	22.3
실업수당 청구자 수[4]	26.3	24.4	25.3	24.7	24.3	24.6	23.9	22.8	22.3	21.5	21.0
소비자물가 상승률[5]	1.3	2.1	1.8	2.5	1.9	1.9	2.1	2.2	2.7	2.9	2.7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5]	2.2	1.9	2.1	2.2	1.8	1.7	1.8	1.9	2.2	2.4	2.2
생산자물가 상승률[6]	-1.0	3.2	1.0	3.5	3.0	2.8	3.4	2.9	3.5	4.2	3.6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6]	1.5	1.8	1.6	1.7	1.9	1.8	2.0	1.9	2.1	2.4	2.4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3) 전분기 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1984년=100, 전년동기(월) 대비
6) 1982년=100,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Bloomberg

〈국채금리〉

■ 2018년 2/4분기 국채금리(3년물 2.61%, 10년물 2.92%)는 전분기 대비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31bp,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7bp 상승함

○ 2018년 6월 FOMC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였으며 양호한 경제 성장세와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함[8)]

- FOMC의 금리인상 예상 횟수는 지난 3월 3회에서 6월 4회로 조정되었고, 연준은 중립금리 수준까지 점진적인 금리인상 추세를 유지하고 향후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함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1.00	1.57	1.23	1.51	1.46	1.50	1.81	2.30	2.61	2.68	2.70
국채 10년물	1.84	2.33	2.13	2.44	2.26	2.24	2.37	2.75	2.92	2.88	2.88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8) 김성택·남경옥(2018. 6. 14), "[6월 FOMC] 25bp 인상, '18·'19년 금리전망치 상향", 국제금융센터

나. 중국경제

□ 2018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1.8%를 기록함

□ 2018년 2/4분기 중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소매판매 증가율(9.0%)과 소비자신뢰지수(121.3)는 전분기 대비 동반 하락함
- ◦ 산업생산 증가율(6.6%)과 구매자관리지수(51.6)는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은 하락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4.1%)은 상승함

□ 2018년 2/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함

〈경제성장〉

■ 2018년 2/4분기 중국의 전분기 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0.4%p 상승한 1.8%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증가율보다 1.3%p 하락한 6.4%를 기록함

- 제조업 부문 투자는 반등하였으나, 금융 긴축에 따라 국유부문 인프라 투자와 2차산업 투자가 감소함[9)]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5.2%p 하락한 11.8%를 나타냄

- 대(對) ASEAN 및 일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EU 및 미국 수출은 둔화함[10)]

○ 수입 증가율은 20.7%로 전분기 대비 1.2%p 상승함

9) ECB(2018. 8. 9), *ECB Economic Bulletin Issue 5 2018*
10) 이상원·이치훈(2018. 7. 16), "'18. 2Q 중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1]	6.7	6.9	1.8	1.6	1.5	1.8	1.8	1.6	1.4	1.8
			(6.7)	(6.8)	(6.9)	(6.9)	(6.8)	(6.8)	(6.8)	(6.8)
고정자산투자[2]	9.0	8.1	8.1	8.2	9.1	8.7	7.9	7.2	7.7	6.4
수출 증가율[3]	-6.6	8.1	-6.7	-5.1	7.4	9.0	6.4	9.6	17.0	11.8
수입 증가율[3]	-5.6	16.8	-4.3	2.1	25.1	14.5	14.4	13.1	19.5	20.7

주: 1) 전분기 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8. 7); Bloomberg

〈소비부문〉

■ 2018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전분기보다 다소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p 하락한 9.0%를 나타냄

- 5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11]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1.6 하락한 121.3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 관련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1](%)	10.4	10.4	10.6	10.9	10.8	10.3	9.9	10.1	9.0	8.8	9.0
소비자신뢰지수	104.4	116.3	108.1	112.0	114.8	116.0	122.6	122.9	121.3	119.7	n.a.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11) 이상원·이치훈(2018. 7. 16), "'18. 2Q 중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국제금융센터

〈생산부문〉

■ 2018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동반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상승한 6.6%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1.6으로 전분기보다 0.6 상승함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 관련 지표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1](%)	6.2	6.6	6.1	7.6	6.9	6.3	6.2	6.0	6.6	6.0	6.1
제조업PMI[2]	50.3	51.6	51.4	51.6	51.4	51.8	51.7	51.0	51.6	51.2	51.3

주: 1)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 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12] 및 물가〉

■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락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물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1.8%를 기록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4.1%를 기록함[13]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6	2.2	1.4	1.4	1.6	1.8	2.2	1.8	2.1	2.3
생산자물가 상승률	-1.3	6.3	3.3	7.4	5.8	6.2	5.9	3.7	4.1	4.6	4.1

주: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12)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13) 이상원·이치훈(2018. 7. 16), "'18. 2Q 중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국제금융센터

〈국채금리 및 환율〉

■ 2018년 2/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24bp 하락한 3.91%, 국채 10년물 금리는 15bp 하락한 4.18%임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0.31% 상승한 6.379위안/달러임

-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따른 무역긴장 고조와 성장둔화 우려가 위안화 약세에 영향을 미침[14)]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3.34	4.01	3.25	4.16	4.16	3.76	3.95	4.15	3.91	3.71	3.59
국채 10년물	3.56	4.22	3.48	4.25	4.50	4.06	4.08	4.33	4.18	4.08	3.96
위안/달러	6.644	6.758	6.833	6.889	6.862	6.671	6.613	6.359	6.379	6.717	6.846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4) ECB(2018. 8. 9), *ECB Economic Bulletin Issue 5 2018*

다. 일본경제

□ 2018년 2/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3.9%p 상승한 3.0%를 기록함

□ 2018년 2/4분기 일본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광공업생산 증가율(1.3%)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 소매판매 증가율(0.4%)은 전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소비자신뢰지수(43.7)는 전분기보다 하락함
-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2.0%)은 상승하였지만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2.2%)은 하락함
- ○ 실업률(2.4%)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1.60배)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 소비자물가 상승률(0.7%)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8년 2/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2%, 10년물 0.05%)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 유지 결정에 따라 전분기 수준과 유사함

〈경제성장〉

■ 2018년 2/4분기 일본의 계절조정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3.9%p 상승한 3.0%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9%p 상승한 0.7%를 기록함

-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 중 하나인 신선식품 가격 급등이 안정화되면서 실질구매력이 제고되었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승함[15)]

○ 설비투자 증가율은 3.1%로, 전분기 대비 2.4%p 상승함

- 올림픽(2020년) 개최, 연구개발투자 등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함[16)]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한 -2.4%를 기록함

15) 손영환(2018. 8. 10), "일본 2분기 성장률 플러스 회복(연율 1.9%)", 국제금융센터
16) 손영환(2018. 8. 10), "일본 2분기 성장률 플러스 회복(연율 1.9%)", 국제금융센터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임대주택 건축이 완료되었고,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비한 선수요가 나타나지 않아 마이너스 증가율 추세가 지속됨[17)]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4%p 상승한 0.0%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0.2%를 기록함

- 대(對) 아시아 재화 수출 둔화와 운송 등 서비스 수출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함[18)]

○ 수입 증가율은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한 0.9%를 기록함[19)]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함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0	1.7	0.3 (0.9)	0.7 (2.7)	0.5 (2.0)	0.6 (2.3)	0.2 (0.9)	-0.2 (-0.9)	0.7 (3.0)
민간소비	0.1	1.0	0.0	0.5	0.8	-0.7	0.3	-0.2	0.7
설비투자	0.6	2.9	1.7	0.7	0.2	1.3	0.9	0.7	3.1
주택투자	5.7	2.7	0.5	0.9	1.3	-1.4	-3.0	-2.5	-2.4
공공투자	-0.1	1.2	-2.1	-0.2	5.3	-2.8	-0.6	-0.4	0.0
수출	1.7	6.7	2.7	1.9	0.2	2.1	2.1	0.6	0.2
수입	-1.6	3.4	1.0	1.4	1.9	-1.5	3.3	0.2	0.9
정부지출	1.3	0.2	-0.2	0.3	0.4	0.1	0.1	0.0	0.2

주: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8. 9)

〈소비 및 생산부문〉

■ 2018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상승한 0.4%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43.7로 전분기보다 0.7 하락함

17) 손영환(2018. 8. 10), “일본 2분기 성장률 플러스 회복(연율 1.9%)”, 국제금융센터
18) 손영환(2018. 8. 10), “일본 2분기 성장률 플러스 회복(연율 1.9%)”, 국제금융센터
19) 손영환(2018. 8. 10), “일본 2분기 성장률 플러스 회복(연율 1.9%)”, 국제금융센터

■ 2018년 2/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과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상승하고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하락함

○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1.3%로, 전분기보다 2.6%p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6.2%p 상승한 -2.0%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p 하락한 2.2%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1]	-0.6	1.9	1.5	-0.2	0.6	0.1	1.3	-0.6	0.4	0.1	n.a.
소비자신뢰지수[2]	41.7	43.8	42.0	43.4	43.4	43.8	44.5	44.4	43.7	43.5	43.3
광공업생산 증가율[3]	-0.2	4.5	1.9	0.2	1.8	0.4	1.6	-1.3	1.3	-0.2	n.a.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4]	6.4	-0.3	7.9	3.2	1.1	-2.4	-2.5	-8.2	-2.0	-0.7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5]	1.7	-1.1	0.4	-1.2	-3.4	2.8	0.3	3.3	2.2	-8.4	n.a.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3) 계절조정, 2005년=100,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4) 전년동기(월) 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 대비,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8년 2/4분기 전분기 대비 실업률은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20]은 소폭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1%p 하락한 2.4%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함

○ 유효구인배율은 1.60배로 전분기 대비 높아지며 상승세를 지속함

■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전분기 대비 하락함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1%를 나타냄

20) 유효구인배율=구인 수/구직자 수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3.1	2.8	3.1	2.9	2.9	2.8	2.7	2.5	2.4	2.5	2.4
유효구인배율[1)]	1.36	1.50	1.41	1.44	1.49	1.52	1.57	1.59	1.60	1.63	1.63
소비자물가 상승률[2)]	-0.1	0.5	0.3	0.3	0.4	0.6	0.6	1.3	0.7	0.9	1.3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2)]	0.3	-0.1	0.1	-0.1	-0.2	0.0	0.1	0.2	0.1	0.0	0.2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2015년=100, 전년동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 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국채금리〉

■ 2018년 2/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21)] 유지에 따라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일본은행(BOJ)은 2018년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22)]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bp 하락한 -0.12%,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보다 1bp 하락한 0.05%임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국채 3년물	-0.20	-0.14	-0.19	-0.18	-0.15	-0.11	-0.13	-0.11	-0.12	-0.11	-0.09
국채 10년물	-0.04	0.06	0.00	0.08	0.04	0.05	0.05	0.06	0.05	0.05	0.11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1)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22) 손영환(2018. 6. 15), "일본은행, 현 통화정책 유지/물가판단 하향조정", 국제금융센터

라. 유로지역[23]경제

□ 2018년 2/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4%를 기록함

□ 2018년 2/4분기 유로지역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경기체감지수(112.5)는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고, 산업생산 증가율(-0.2%)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 실업률은 주요국(5.5%), 북유럽(5.7%), 동유럽(4.8%), 남유럽(13.1%)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요국(2.1%), 북유럽(1.6%), 동유럽(2.7%), 남유럽(1.2%)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8년 2/4분기 유로지역 주요국의 평균 국채금리(독일 3년물 -0.48%, 독일 10년물 0.48%, 영국 3년물 0.82%, 영국 10년물 1.39%)는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8년 2/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이탈리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영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0.4%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0.2%, 0.6%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은 0.1%p, 0.3%p 상승하여 각각 0.5%, 0.4%를 기록하였고 이탈리아는 0.1%p 하락한 0.2%를 나타냄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0.2%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1.2%를 나타냄

- 투자 증가율 상승에는 호의적인 자금조달환경과 기업 수익성 제고, 그리고 견조한 수요가 영향을 미침[24]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3%p 상승한 0.6%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4%p 상승한 1.1%를 나타냄

23)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24) ECB(2018. 9. 27), *ECB Economic Bulletin Issue 6 2018*

- 유로지역 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함[25)]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p 상승한 0.4%를 기록함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1)]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9	2.4	0.6	0.7	0.7	0.7	0.7	0.4	0.4
			(3.1)	(2.7)	(2.8)	(2.7)	(2.6)	(1.6)	(1.5)
민간소비	2.0	1.6	0.6	0.4	0.5	0.4	0.2	0.5	0.2
고정자본투자	3.9	2.5	1.3	-0.6	1.9	-0.1	1.4	0.3	1.2
수출	2.9	5.2	1.5	1.9	1.1	1.3	2.1	-0.7	0.6
수입	4.1	3.9	1.8	0.6	1.1	0.6	1.3	-0.3	1.1
정부지출	1.9	1.1	0.3	0.2	0.4	0.4	0.2	0.1	0.4

주: 1) 전분기 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8. 10)

〈소비 및 생산부문〉

■ 2018년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12.5로 전분기 대비 1.5 하락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0.8%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0.5 하락함

■ 2018년 2/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0.2%를 나타냄

25) ECB(2018. 9. 27), *ECB Economic Bulletin Issue 6 2018*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1)]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 지역 ESI[2)]	104.2	110.8	106.2	107.4	109.5	111.8	114.4	114.0	112.5	112.1	111.6
소매판매 증가율[3)](%)	1.6	2.2	1.0	0.4	0.8	0.3	0.4	0.1	0.8	-0.6	-0.2
소비자신뢰지수[4)]	-7.8	-2.5	-6.6	-5.5	-2.7	-1.5	-0.2	0.5	0.0	-0.5	-1.9
산업생산 증가율[5)](%)	1.7	2.9	1.3	0.0	1.0	1.8	1.2	-0.7	-0.2	-0.8	n.a.

주: 1) 전분기 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 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 40%, 서비스업 30%, 소비자 신뢰 20%, 건설업 5%, 소매거래 5%임
3) 계절조정 2005년=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년=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26)]〉

■ 2018년 2/4분기 유로 지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5.5%를 기록함

○ 북유럽의 실업률(5.7%)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하였고 동유럽의 실업률(4.8%)은 0.2%p, 남유럽의 실업률(13.1%)은 0.7%p 하락함

■ 2018년 2/4분기 유로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2.1%를 기록함[27)]

○ 북유럽과 동유럽, 남유럽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3%p, 0.6%p, 0.4%p 상승한 1.6%, 2.7%, 1.2%를 기록함

26)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27) ECB(2018. 8. 9), *ECB Economic Bulletin Issue 5 2018*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5]			
	주요국[1]	북유럽[2]	동유럽[3]	남유럽[4]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7년 4/4	5.7	6.0	5.3	14.2	2.0	1.2	2.0	1.3
2018년 1/4	5.6	5.8	5.0	13.8	1.9	1.3	2.1	0.8
2018년 2/4	5.5	5.7	4.8	13.1	2.1	1.6	2.7	1.2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9)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실질 GDP	2.2	2.2	0.4	1.1	0.5	0.6	0.5	0.4	0.5
	민간소비	2.1	1.8	0.7	0.7	0.8	0.1	0.2	0.5	0.3
	고정자본투자	3.5	2.9	0.2	2.0	1.3	0.4	0.3	1.4	0.5
	수출	2.3	4.6	1.3	2.3	1.1	1.2	1.7	-0.3	0.7
	수입	4.1	4.8	2.6	1.0	1.8	0.8	1.3	-0.2	1.7
프랑스	실질 GDP	1.2	2.2	0.6	0.8	0.6	0.7	0.7	0.2	0.2
	민간소비	2.1	1.0	0.7	0.0	0.3	0.4	0.2	0.2	-0.1
	고정자본투자	2.8	4.5	0.9	2.3	0.8	1.3	1.0	0.1	0.8
	수출	1.5	4.5	1.5	0.1	2.7	1.0	2.2	-0.4	0.1
	수입	3.0	4.0	0.7	2.0	-0.4	1.9	0.3	-0.6	0.7
이탈리아	실질 GDP	1.1	1.6	0.5	0.5	0.3	0.4	0.3	0.3	0.2
	민간소비	1.3	1.5	0.3	0.8	0.1	0.3	0.1	0.4	0.0
	고정자본투자	3.5	4.3	2.7	-1.6	1.4	3.0	1.6	-1.1	2.8
	수출	2.1	5.7	1.7	2.8	0.0	1.7	1.8	-2.4	-0.1
	수입	3.6	5.2	1.4	1.5	1.3	1.4	1.6	-2.6	1.6
스페인	실질 GDP	3.2	3.0	0.6	0.8	0.9	0.6	0.7	0.6	0.6
	민간소비	2.9	2.5	0.3	0.5	0.8	0.9	0.4	0.9	0.1
	고정자본투자	2.9	4.8	1.1	2.4	-0.2	2.3	0.6	1.1	3.5
	수출	5.2	5.2	2.5	1.3	1.3	0.1	1.4	0.6	0.2
	수입	2.9	5.6	2.1	2.4	0.5	1.9	0.6	1.7	1.0
영국	실질 GDP	1.8	1.7	0.7	0.4	0.3	0.4	0.4	0.1	0.4
	민간소비	3.1	1.8	0.0	0.6	0.3	0.3	0.3	0.5	0.3
	고정자본투자	2.3	3.3	-0.6	1.0	1.8	0.2	0.7	-1.0	-0.5
	수출	1.0	5.7	6.6	-0.4	1.1	2.8	1.0	-0.8	-2.2
	수입	3.3	3.2	0.2	0.3	0.7	1.1	-0.1	-0.3	-0.2

주: 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2018. 10)

〈국채금리〉

■ 2018년 2/4분기 영국과 독일의 국채금리는 대체로 전분기 대비 하락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7bp 하락한 -0.48%,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14bp 하락한 0.48%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5bp 상승한 0.82%, 10년물 금리는 전분기 대비 6bp 하락한 1.39%임

○ 유럽 중앙은행(ECB)이 2018년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구매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발표한 것이 국채금리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단, 10월에는 자산매입 물량을 매월 300억 유로에서 150억 유로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힘[28)]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독일국채 3년물	-0.58	-0.64	-0.68	-0.71	-0.67	-0.57	-0.62	-0.41	-0.48	-0.55	-0.50
독일국채 10년물	0.14	0.37	0.19	0.36	0.31	0.45	0.38	0.62	0.48	0.35	0.36
영국국채 3년물	0.39	0.32	0.23	0.22	0.21	0.34	0.52	0.77	0.82	0.77	0.77
영국국채 10년물	1.22	1.20	1.25	1.28	1.06	1.18	1.28	1.45	1.39	1.27	1.30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8) IMF(2018. 10), *World Economic Outlook*

2. 국내경제

□ 201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8%,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함
  ○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 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증가함

□ 2018년 2/4분기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은 소비심리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함
  ○ 건설투자도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증가율이 동반 하락하며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함
  ○ 산업생산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반도체와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1.2%를 기록함
  ○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3.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통관기준 수입 증가율은 12.9%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분기 대비 다소 확대됨
  ○ 총취업자 수는 0.4% 증가하였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다소 개선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 확대에 따라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5%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함

□ 2018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가. 경제성장

■ 2018년 2/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 건설, 지식생산물 투자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대폭 상승하여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함

○ 민간소비는 내구재 판매가 둔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에 그침(〈표 25〉 참조)

○ 설비, 건설,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각각 10.3%p, 3.3%p, 1.3%p 하락한 -3.0%, -1.5%, 2.2%를 기록함(〈표 24〉, 〈표 26〉 참조)

-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부문의 감소로 5.9% 하락함

○ 수출은 반도체, 석유류 제품 등의 수출 증가와 비거주자 국내소비, 지식재산권 사용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함[29)30)]

○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함(〈표 30〉 참조)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2.6 (0.5)	2.4 (0.5)	2.8	2.9 (1.0)	2.8 (0.6)	3.8 (1.4)	2.8 (-0.2)	3.1	2.8 (1.0)	2.8 (0.6)
민간소비	2.7	1.5	2.5	2.1	2.4	2.6	3.4	2.6	3.5	2.8
설비투자	-3.9	2.0	-2.3	16.1	17.9	16.3	8.6	14.6	7.3	-3.0
건설투자	11.2	11.6	10.7	11.3	8.5	8.0	3.8	7.6	1.8	-1.5
지식생산물투자	2.7	2.6	2.3	3.2	2.2	2.9	3.5	3.0	3.5	2.2
수출	3.4	1.2	2.1	3.7	0.3	4.4	-0.6	1.9	1.6	4.8
수입	6.5	3.3	4.5	10.1	6.6	7.4	4.1	7.0	4.2	2.0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29)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0)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9. 4),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8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4.7%로 전분기보다 0.3%p 하락함

○ 2018년 2/4분기 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5.7%로 전분기보다 3.1%p 하락함

- 7월 내구재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용품 등의 가전제품 판매 증가[31]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등으로 인한 승용차(15.0%)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8월 내구재는 승용차와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증가함[32][33]

○ 2018년 2/4분기 준내구재 판매는 의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하였고 비내구재 판매는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함

- 7월 비내구재 판매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화장품 판매가 증가함[34]

〈표 25〉 소비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2]	8월[2]
민간소비	2.1	2.4	2.6	3.4	2.6	3.5	2.8	-	-
소매판매	1.6	1.0	3.2	2.1	1.9	5.0	4.7	5.7	6.0
내구재	3.4	3.8	12.0	2.3	5.4	8.8	5.7	6.6	9.5
* 승용차	2.8	-5.6	16.1	-5.9	0.9	8.5	8.4	15.0	11.5
준내구재	-1.8	-2.3	-0.8	0.6	-1.1	4.8	5.9	7.8	6.2
비내구재	2.2	1.1	0.9	2.8	1.7	3.4	3.6	4.4	4.2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1) 국회예산정책처(2018. 9), 『NABO 경제동향&이슈』
32) 한국개발연구원(2018. 9), 『KDI 경제동향』
33) 한국개발연구원(2018. 9), 『KDI 경제동향』
34) 국회예산정책처(2018. 9), 『NABO 경제동향&이슈』

■ 2018년 2/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3%p 하락한 -3.0%를 기록함

○ 2018년 2/4분기 전년동기 대비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7.5%)와 운송장비(-1.5%)가 모두 감소하며 5.9% 하락함

- 특히 디스플레이 투자 축소와 주요 업체 반도체설비 증설 완료 등이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침[35)]
- 7월 설비투자지수 상승률은 운송장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계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10.1%를 기록하였으며, 8월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됨[36)]

○ 2018년 2/4분기에는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37)] 증가율(-0.4%)이 대폭 축소되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기계수주는 전자·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함[38)]

■ 2018년 2/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건축과 토목부문의 증가세 둔화로 전분기 대비 3.3%p 하락한 -1.5%를 기록함

○ 건설기성(불변)[39)] 증가율은 건축(-1.1%)과 토목(-10.1%) 공사 실적 감소로 전분기 대비 4.9%p 하락한 -3.4%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둔화세는 7, 8월에도 확대됨

- 건축은 주거용 건물건설 감소와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함[40)41)]
- 토목 건설은 통신시설과 산업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감소함[42)]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 증가율 역시 건축과 토목부문의 감소세 확대로 전분기 대비 19.3%p 하락한 -15.7%를 기록함

- 7월 국내건설수주(경상)는 대형 화력발전소 수주 등으로 인해 토목부문이 일시적으로

35)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6) 한국개발연구원(2018. 9), 『KDI 경제동향』
37)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38) 통계청 보도자료(2018. 10. 2),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39)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40)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9. 4),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41) 한국은행(2018. 7), 『경제전망보고서』
42)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9. 4),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대폭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주택, 공장 및 창고 부문의 수주 감소로 인해 증가율 -32.1%를 기록함[43][44]

〈표 26〉 투자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2]	7월[2]	8월[2]
설비투자	16.1	17.9	16.4	8.6	14.6	7.3	-3.0	-	-
설비투자지수	18.2	17.8	20.6	2.0	14.1	9.4	-5.9	-10.1	-11.2
기계류	24.8	34.5	25.5	7.4	22.4	10.4	-7.5	-16.6	-18.1
운송장비	2.6	-13.5	8.4	-10.8	-4.4	6.4	-1.5	8.3	8.3
국내기계수주[3]	21.1	23.7	31.3	4.2	19.2	4.4	-0.4	-6.0	6.8
건설투자	11.3	8.5	8.0	3.8	7.6	1.8	-1.5	-	-
건설기성(불변)	17.7	13.6	12.7	-0.5	10.1	1.5	-3.4	-6.2	-6.2
건축	26.6	22.9	21.7	5.6	18.2	3.5	-1.1	-5.9	-7.8
토목	-1.1	-6.9	-8.9	-14.8	-8.4	-3.7	-10.1	-7.3	-0.3
국내건설수주(경상)	1.2	17.9	-10.2	-15.0	-3.1	3.6	-15.7	24.7	-32.1
건축	-7.7	8.4	-8.3	-15.5	-6.5	-0.5	-14.7	-7.7	-38.0
토목	29.7	63.3	-17.3	-13.0	9.7	13.0	-19.1	157.6	-13.1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 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생산〉

■ 2018년 2/4분기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1.2%를 기록함

○ 2018년 2/4분기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9%p 상승한 0.7%를 기록함

- 7월 광공업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는 크게 증가하였고, 8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함[45][46]
- 제조업 생산은 전기 및 전자기기와 석유 및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43) 한국개발연구원(2018. 9), 『KDI 경제동향』
44) 한국개발연구원(2018. 10), 『KDI 경제동향』
45) 한국개발연구원(2018. 9), 『KDI 경제동향』
46) 한국개발연구원(2018. 10), 『KDI 경제동향』

3.3%p 확대된 0.5% 증가함[47)]

○ 2018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2.3% 증가함

- 도매 및 소매업(1.6%), 금융 및 보험업(7.5%)의 증가세 확대와 부동산 개발과 공급 감소로 인한 부동산 및 임대업(-1.3%)이 감소함[48)]
-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율은 음식점업 증가로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2.1%를 기록함[49)]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2)]	7월[2)]	8월[2)]
전산업 생산[3)]	3.9	2.5	3.9	-0.7	2.3	0.7	1.2	1.3	1.5
광공업	4.7	2.2	4.6	-3.8	1.9	-2.2	0.7	1.0	2.5
제조업	4.8	1.9	4.6	-4.8	1.6	-2.8	0.5	0.9	2.0
자동차	-0.5	-1.1	11.7	-17.9	-2.9	-10.5	-4.7	-11.9	9.6
ICT	11.4	0.1	1.6	2.3	3.6	1.9	12.2	13.9	7.1
서비스업	2.2	1.7	2.5	0.9	1.9	2.6	2.3	2.1	1.6
도매 및 소매업	0.9	0.1	2.2	-0.2	0.7	2.2	1.6	2.2	2.1
운수업	0.5	0.9	2.8	1.9	1.6	1.0	4.0	2.3	0.5
숙박 및 음식점업	-1.0	-1.6	-2.4	-2.5	-1.9	-3.3	-2.1	-0.8	-1.4
금융 및 보험업	4.8	4.9	4.5	6.3	5.1	7.7	7.5	4.9	4.5
부동산 및 임대업	3.3	2.5	3.7	-4.6	1.2	2.0	-1.3	-2.9	-5.3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47)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9. 4),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48)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9. 4),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49)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9. 4),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고용 및 물가〉

■ 2018년 2/4분기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0.4%를 기록하였고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다소 개선됨

○ 2018년 2/4분기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자동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부진과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하여 0.4%를 기록함[50]

- 7월과 8월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고용은 다소 개선됨[51][52]

○ 2018년 2/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61.2%를 기록함

- 7월 고용률은 취업자보다 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소폭 상승함[53]

○ 2018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3.9%를 기록함

- 8월 실업률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10.0%)을 중심으로 40대, 50대 등에서도 상승하여 전년동월 대비 4.0% 상승함[54]

■ 2018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3.7%)과 광공업(-2.0%) 부문에서 감소하였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0.7%)은 소폭 증가함

○ 전년동기 대비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자동차산업 업황 부진과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3.0%p 감소한 -2.0%를 기록함

- 7월과 8월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어 각각 -2.8%, -2.3%를 기록함[55][56]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함

- 건설업의 경우, 고용 증가폭이 7월과 8월 모두 확대되어 각각 1.8%, 2.7%를 기록함
-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인력수요 확대 영향으로 보건·복지, 공공행정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폭염 등으로 인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고용 부진으로 취업 증가세가 둔화됨[57]

50)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5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8. 17), "'18년 7월 고용동향"
5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9. 12), "'18년 8월 고용동향"
5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8. 17), "'18년 7월 고용동향"
54) 통계청 보도자료(2018. 9. 12), "2018년 8월 고용동향"
5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8. 17), "'18년 7월 고용동향"
5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9. 12), "'18년 8월 고용동향"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1]	1.4	1.4	1.0	1.0	1.2	0.7	0.4	0.0	0.0
청년취업자[1]	0.4	0.8	-0.2	-1.1	0.0	0.7	-1.7	-1.2	-1.0
고용률[2]	59.6	61.3	61.4	61.0	60.8	59.6	61.2	61.3	60.9
실업률[3]	4.3	3.8	3.4	3.2	3.7	4.3	3.9	3.7	4.0
청년[4]실업률[3]	10.7	10.3	9.3	9.0	9.8	10.0	10.1	9.3	10.0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5	0.1	1.5	2.2	0.5	5.3	3.7	4.3	4.9
광공업	-2.5	-0.4	0.8	0.9	-0.3	1.0	-2.0	-2.9	-2.5
제조업	-2.6	-0.4	0.7	0.9	-0.4	1.0	-2.0	-2.8	-2.3
SOC[5] 및 기타서비스업	2.5	1.9	1.1	0.9	1.6	0.4	0.7	0.4	0.2
건설업	7.6	8.8	4.4	4.7	6.4	3.6	0.8	1.8	2.7
도·소매, 음식, 숙박	2.1	0.8	-0.2	-0.2	0.6	-1.6	-1.2	-1.3	-3.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6	-1.3	-1.8	-0.9	-1.1	0.6	1.0	4.3	4.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7	2.2	2.1	1.5	2.1	1.8	3.3	-0.1	0.7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함

○ 2018년 2/4분기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률 확대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한 1.4%를 기록함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상승률(2.9%)은 폭염 등으로 인한 쌀 및 일부 채소 가격상승으로 전분기보다 1.2%p 상승함[58]
- 공업제품 물가지수 상승률(1.6%)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0.7%p 상승함[59]
- 전기·수도·가스 상승률(-3.0%)은 2017년 11월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2%p 하락함[60]

5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8. 17), "'18년 7월 고용동향"
58) 국회예산정책처(2018. 9), 『NABO 경제동향&이슈』
59)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60)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7월 상품물가(1.6%)는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작년 채소류 가격 강세의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둔화됨[61]
- 8월 상품물가(1.3%)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전기요금 인하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62]

○ 2018년 2/4분기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6%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집세, 공공서비스요금의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서비스가격 상승세 확대의 영향임[63]

■ 2018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106.8)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과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함

○ 7월 소비자심리지수(101.0)는 통상마찰 심화와 고용지표 부진,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64]

○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4월 이후 최저치인 99.2를 기록함[65]

6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8. 10), "최근경제동향"
6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9. 14), "최근경제동향"
63)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64) 국회예산처(2018. 8), 『NABO 경제동향&이슈』
65) 국회예산처(2018. 9), 『NABO 경제동향&이슈』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1)]

(단위: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심리지수[2)]	94.3	106.4	109.3	110.5	105.1	108.7	106.8	101.0	99.2
소비자물가 상승률[3)]	2.1	1.9	2.3	1.5	1.9	1.3	1.5	1.5	1.4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2.0	1.8	2.9	1.0	1.9	0.8	1.4	1.6	1.3
농축수산물	6.1	6.1	8.4	1.4	5.5	1.7	2.9	1.5	3.5
공업제품	2.1	1.3	0.9	1.5	1.4	0.9	1.6	2.0	2.0
전기·수도·가스	-6.9	-2.4	8.0	-3.3	-1.4	-1.8	-3.0	-1.8	-8.9
서비스	2.1	2.0	1.9	1.9	2.0	1.6	1.6	1.4	1.4
집세	1.7	1.8	1.6	1.4	1.6	1.1	0.7	0.6	0.5
공공서비스	1.0	1.0	1.0	0.8	1.0	0.5	0.2	0.0	-0.1
개인서비스	2.7	2.5	2.3	2.5	2.5	2.3	2.5	2.2	2.4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8년 2/4분기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3.1%(1,5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상승세가 둔화됨

○ 선박을 제외한 반도체, 석유류 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선박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제한됨[66)]

- 7월 수출은 2017년 7월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수출금액이 연 5회 및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함[67)]
- 8월 수출은 선박과 무선통신기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함[68)]

66)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6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8. 1),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
68) 국회예산처(2018. 9), 『NABO 경제동향&이슈』

■ 2018년 2/4분기 수입 증가율은 12.9%(1,33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7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확대됨

○ 자본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재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69)]

- 7월 수입 증가율은 유가 상승, 컴퓨터기억장치와 발전용 수요 증가로 인한 액화천연가스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16.4%를 기록함[70)]
- 8월 수입 증가율은 컴퓨터기억장치 수입 감소로 9.4%에 그침[71)]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9.5	4.8	8.8	1.4	5.9	5.1	8.0	0.4	-1.7
	원료 및 연료	58.5	15.2	28.6	26.3	30.7	12.3	45.9	44.3	39.7
	경공업 제품	1.9	-3.9	15.0	-6.8	1.5	2.9	5.3	-5.4	-25.2
	중화학 공업품	12.8	18.8	24.6	8.4	16.0	10.5	-0.4	4.1	9.4
	전체	14.7	16.7	24.0	8.4	15.8	10.1	3.1	6.1	8.7
	금액	1,320.6	1,470.5	1,510.5	1,435.4	5,737.0	1,453.6	1,516.7	518.2	512.0
수입	소비재	8.0	5.3	16.5	7.1	9.2	16.0	14.5	8.1	-1.3
	원자재	36.2	22.9	16.6	14.6	22.0	13.6	21.0	31.8	25.6
	자본재	16.2	19.5	20.4	9.6	16.2	12.6	1.5	1.1	-6.5
	전체	24.1	18.6	17.9	11.6	17.8	13.6	12.9	16.4	9.4
	금액	1,164.3	1,178.0	1,208.5	1,234.0	4,784.8	1,322.8	1,329.6	449.5	443.4
무역수지		156.3	292.5	302.0	201.4	952.2	130.8	187.1	68.7	68.5

주: 1)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8년 2/4분기 지역별 수출은 대(對) 중국, 미국, 중동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중국과 중동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에서 모두 감소함

○ 수출의 경우,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의 대(對)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수입규제와 부품가격 인상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를 중심으로 대(對) 미국 수출 또한 증가함[72)]

69) 한국은행(2018. 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7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8. 1),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
71) 국회예산처(2018. 9), 『NABO 경제동향&이슈』

- 7월 수출은 대(對) 중국(27.2%)과 대(對) 일본(17.6%)이 연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대(對) 중동(21.2%)은 석유제품, 화물차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함[73]
- 8월 대(對) 미국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7% 증가에 그침[74]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1]	2017				2018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중국	26.8	7.4	15.5	16.3	14.2	14.8	27.6	27.2	20.8
	ASEAN	16.1	27.1	33.4	20.2	27.8	12.9	-0.3	11.8	0.0
	미국	12.2	0.0	19.5	-2.7	3.2	-3.2	5.6	8.7	1.7
	EU	9.6	35.9	24.0	-2.0	15.9	14.9	-7.3	6.9	-3.7
	중동	3.8	-4.8	0.7	-22.2	-7.0	-11.2	-6.3	21.2	-8.0
	중남미	4.3	6.6	23.8	-0.1	10.5	5.7	-3.4	23.1	7.8
	일본	5.0	11.3	8.6	3.3	10.1	16.2	14.1	17.6	14.7
	전체	100.0	16.7	24.0	8.4	15.8	9.9	3.1	6.1	8.7
수입	중국	20.1	14.0	12.6	8.5	12.5	7.6	9.6	14.1	5.0
	동남아	14.5	21.1	20.8	15.2	18.3	11.1	7.8	10.8	3.0
	중동	16.1	26.6	21.8	14.1	29.6	15.6	31.3	24.1	17.4
	EU	11.9	4.6	17.8	10.6	10.4	22.4	12.4	4.2	9.6
	일본	10.4	20.9	12.5	8.1	16.1	6.3	0.6	2.8	-6.7
	미국	10.8	26.0	20.9	4.5	17.4	20.4	3.3	20.1	6.4
	호주	3.5	44.6	32.9	1.6	26.3	3.8	-3.5	-6.6	31.2
	전체	100.0	18.6	17.9	11.6	17.8	13.7	12.9	16.4	9.4

주: 1) 2018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 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7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7. 1), "2018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73) 관세청 보도자료(2018. 8. 16), "2018년 7월 수출입 현황"
74) 관세청 보도자료(2018. 9. 17), "2018년 8월 수출입 현황"
- 원유 수입단가(달러/배럴): ('17. 12월) 63.9 → ('18. 1월) 66.4 → (2월) 69.3 → (3월) 66.5

〈가계소득〉

■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53만 1천 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4.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증감률 또한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2.7%를 기록함[75)]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중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한 303만 1천 원을 기록함

○ 사업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한 92만 5천 원, 재산소득은 34.4% 증가한 2만 3천 원, 이전소득은 16.6% 증가한 51만 3천 원을 기록함

〈표 32〉 가계소득[1)]

(단위: %, %p, 만 원)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59.3	434.7	453.7	444.5	476.3	453.1
	증가율	0.8	0.9	2.1	3.1	3.7	4.2
	실질 증감률[2)]	-1.2	-1.0	-0.2	1.6	2.4	2.7
근로소득	금액	302.2	287.8	306.7	293.2	320.5	303.1
	증가율	0.0	0.5	1.6	0.9	6.1	5.3
사업소득	금액	85.6	89.1	91.6	94.3	90.5	92.5
	증가율	0.9	4.1	6.2	8.5	5.7	3.8
재산소득	금액	2.2	1.7	1.9	1.8	2.2	2.3
	증가율	15.2	12.9	34.4	9.5	3.4	34.4
이전소득	금액	49.5	44.0	45.0	46.8	59.0	51.3
	증가율	5.3	-1.6	1.0	10.1	19.2	16.6

주: 1) 전년동(분)기 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지출부문은 연간 '가계지출조사'로, 소득부문은 분기 '가계소득동향'으로 각각 작성하여 공표 주기가 개편됨.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7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8. 23), "'18.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다. 경기동향

■ 경기 선행지수[76]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77] 순환변동치는 2017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재고순환지표 등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분기보다 0.1 하락한 100.6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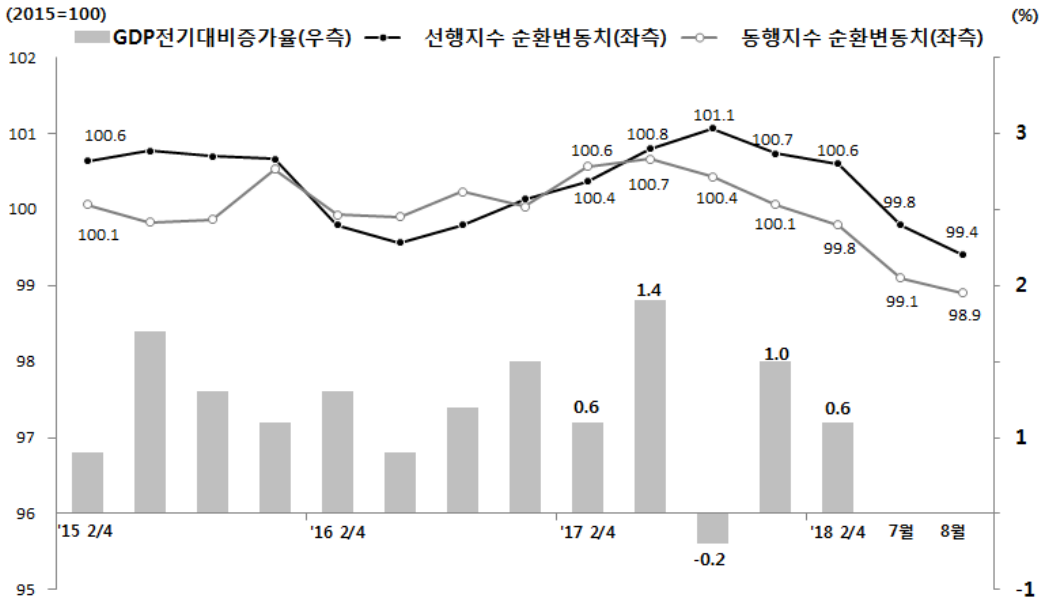
-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등이 상승·증가하였으나, 코스피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2 하락한 99.8을 기록함[78]
-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재고순환지표 등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4 하락한 99.4를 기록함[79]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이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0.3 하락한 99.8을 기록함

- 7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상승·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3 하락한 99.1을 기록함[80]
-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2 하락한 98.9를 기록함[81]

76)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77)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78) 통계청 보도자료(2018. 8. 31),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
79) 통계청 보도자료(2018. 10. 2),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80) 통계청 보도자료(2018. 8. 31),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
81) 통계청 보도자료(2018. 10. 2),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8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8년 2/4분기 재고율[82]은 제조업 출하지수 하락, 재고지수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110.3%를 기록함

○ 7월 재고율은 전월 대비 3.3%p 하락한 110.1%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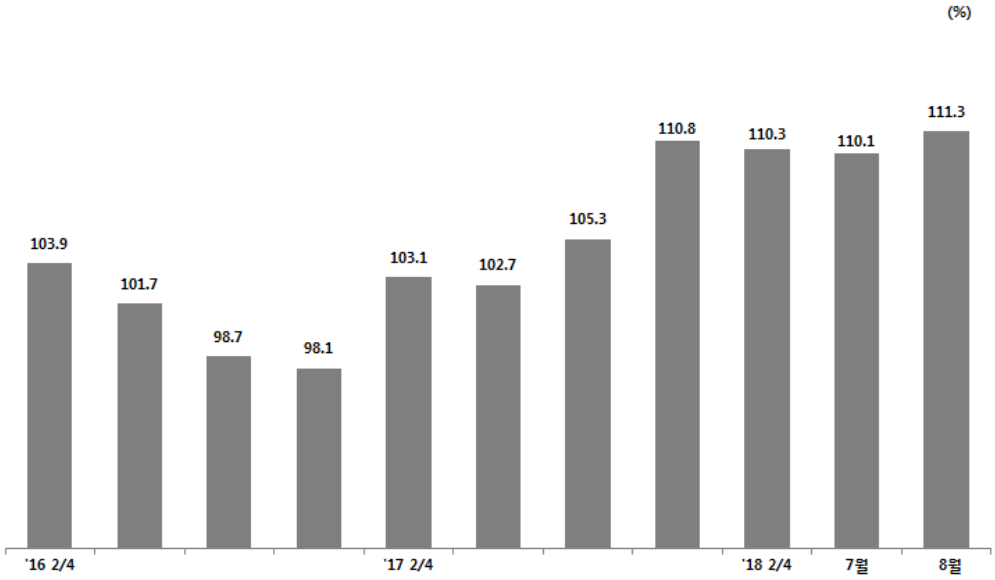
- 7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통신·방송장비, 기계장비 등이 상승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이 하락하여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고, 재고는 화학제품, 컴퓨터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2.9% 감소함[83]

○ 8월 재고율은 전월 대비 1.2%p 상승한 111.3%를 나타냄

- 8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비금속광물, 기계장비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반도체,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1.1% 증가함[84]

82)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 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83) 통계청 보도자료(2018. 8. 31),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
84) 통계청 보도자료(2018. 10. 2),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1)]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8년 3/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2.03%, 2.25%, 2.45%로 2/4분기(2.21%, 2.47%, 2.69%)보다 하락함
- ◦ 기준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50%로 동결됨
- ◦ 국고채 금리 하락의 원인은 국내 고용지표 부진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우려 등임

□ 2018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21.6원으로 전분기(1,078.6원) 대비 상승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290.52로 전분기(2,439.07) 대비 하락함
- ◦ 달러화 강세, 미·중 통상마찰 등으로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임
- ◦ 국내 기업실적 부진 및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확대 우려 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임

□ 2018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7,513.64로 전분기(18,885.45) 대비 하락하였고,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은 11.42로 전분기(11.38) 대비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77로 전분기(0.80) 대비 하락함

〈금리〉

■ 2018년 3/4분기 기준금리는 1.50%로 동결됨(〈표 33〉 참조)

○ 2018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고용지표 부진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흥국의 환율 급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인 가운데, 향후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경제는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부진한 모습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살피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임

■ 2018년 3/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와 동일한 1.65%임(〈표 33〉 참조)

○ 7, 8, 9월 평균 CD(91일) 금리는 모두 1.65%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8년 3/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하여 각각 2.03%, 2.25%, 2.45%임(〈표 33〉 참조)

○ 7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에 대한 경계감,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85]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2.18%, 2.44%, 2.66%)보다 하락한 2.10%, 2.34%, 2.55%를 기록함

○ 8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국내 고용지표 부진[86]과 터키 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확산 우려 등의 영향으로 7월 평균 금리보다 하락한 2.02%, 2.24%, 2.46%를 나타냄

○ 9월 국고채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8월 고용지표 부진[87] 등으로 3년물 1.95%, 5년물 2.13%, 10년물 2.32%로 하락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2018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25	1.50	1.50	1.50	1.50	-	0.25
CD(91일)	1.39	1.50	1.65	1.65	1.65	-	0.26
국고채(3년)	1.77	2.10	2.24	2.21	2.03	-0.18	0.26
국고채(5년)	1.97	2.31	2.49	2.47	2.25	-0.22	0.28
국고채(10년)	2.28	2.49	2.70	2.69	2.45	-0.24	0.17
회사채(3년, AA-)	2.31	2.65	2.79	2.82	2.62	-0.20	0.31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54	0.55	0.54	0.61	0.59	-0.02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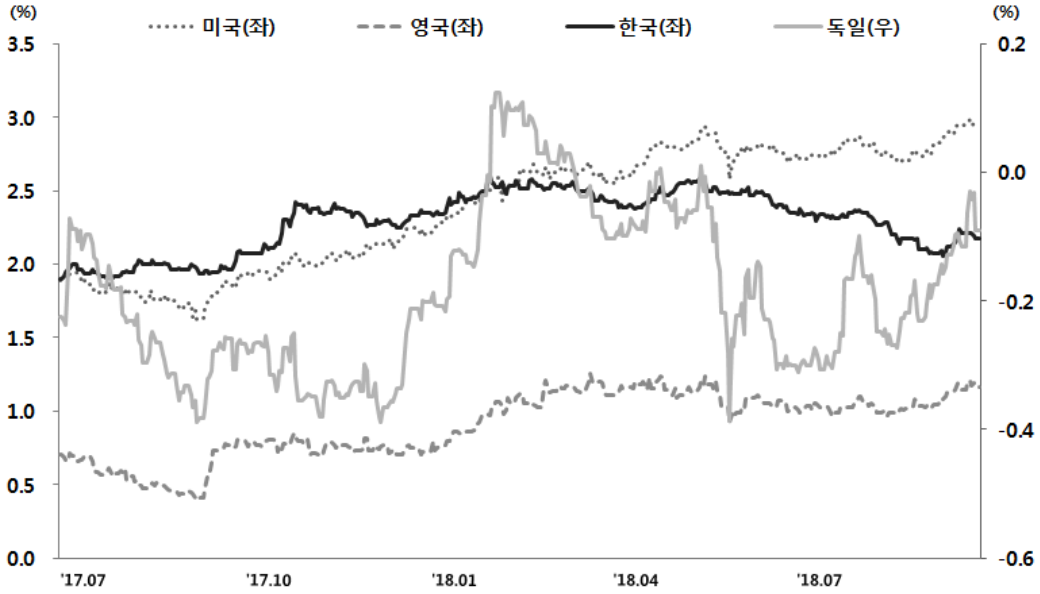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8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8. 7. 12),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 → 2.9%
86)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천 명): 231('16년) → 316('17년) → 183('18. 1Q) → 101(2Q) → 5(7월) 2018년 7월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제조업 고용감소로 2010년 이후 최저치인 5천 명 증가에 그침
87)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기 대비, 월평균, 천 명): 231('16년) → 316('17년) → 183('18. 1Q) → 101(2Q) → 5(7월) → 3(8월) 2018년 8월 취업자 수가 기저효과('17. 8월 취업자 수 증가 연저점)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중심으로 추가 악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3천 명 증가에 그침

■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신흥국 경제 불안과 통상마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개선[88]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미국 금리와 함께 상승세를 보임(〈그림 3〉 참조)

○ 또한 노딜 브렉시트[89] 우려 및 이탈리아 재정 리스크 완화, 터키의 금리인상[90] 등으로 유럽의 주요국 국채금리도 상승함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8년 3/4분기 평균 2.62%로 전분기 대비 20bp 하락함(〈표 33〉 참조)

○ 7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75%, 8월과 9월은 각각 2.66%, 2.40%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 대비 2bp 축소된 평균 59bp임

88) 미국 2Q GDP 전기비연율은 4.2%(1Q 2.2%, 속보치 4.1%)이며, 9월 실업률은 3.7%('69. 12월 이후 최저치), ISM 서비스업지수는 61.6('97. 8월 이후 최고치)임

89) No-Deal Brexit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때 아무런 협의 없이 탈퇴하는 것을 의미함

90) 터키의 기준금리: 17.75% → 24%, 6.25%p 인상

〈환율〉

■ 2018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 대비 43.0원 상승한 평균 1,121.6원임(〈표 34〉 참조)

○ 7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 미·중 통상마찰 현실화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0원 상승한 1,122.8원임

○ 8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중 통상마찰 협상 기대, 트럼프의 연준 비판 및 유로·중국 환율조작 발언 등으로 7월보다 1.6원 하락한 1,121.2원을 기록함

○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북·미의 관계 개선 기대, 신흥국 통화 강세, 수출업계 네고물량 유입 등으로 전월 대비 0.6원 하락한 1,120.6원임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7		2018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132.2	1,105.7	1,072.3	1,078.6	1,121.6	1,122.8	1,121.2	1,120.6
엔/달러	111.0	112.9	108.5	109.0	111.4	111.4	111.0	111.8
달러/유로	1.175	1.177	1.228	1.193	1.163	1.169	1.156	1.164
위안/달러	6.671	6.613	6.359	6.379	6.805	6.717	6.846	6.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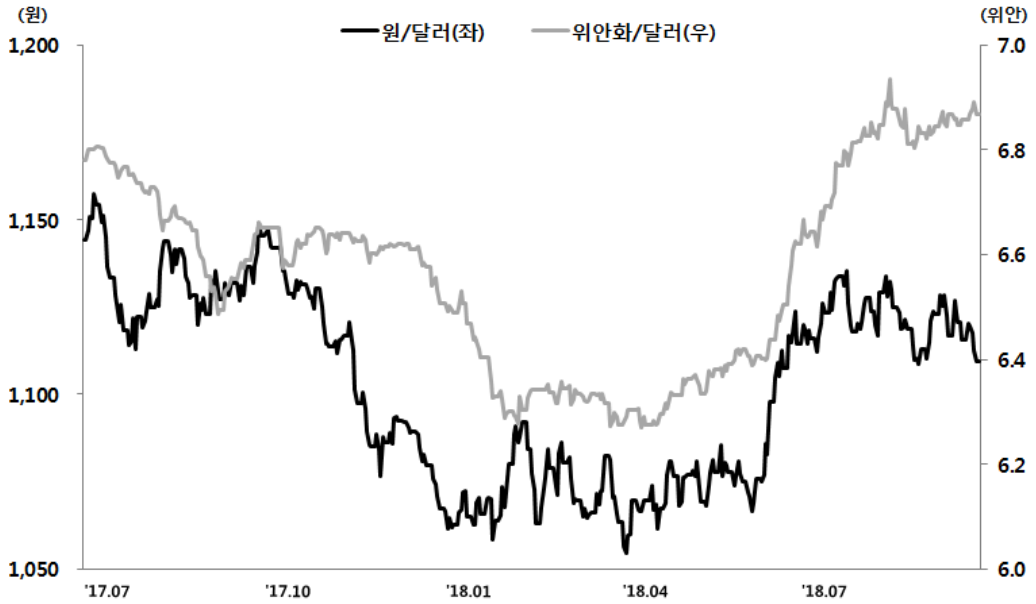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2018년 3/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0.43위안 상승한 평균 6.805위안을 기록함

○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후, 중국 정부가 무역협상 이후에 기준환율에 경기대응요소를 재도입[91]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무역분쟁 부담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91) 중국의 경기대응요소 재도입은 자국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방어 및 미국의 환율조작국 선정과 관련된 부담 완화가 목적임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8년 3/4분기 달러화는 엔화, 유로화 모두에 대해 강세를 보임(〈표 34〉 참조)

○ 7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일 금리차 확대, 일본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한 111.4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독일 난민 문제 합의와 독일의 경제지표 개선,[92] 대미 무역갈등 완화 등으로 상승하여 1.169달러를 기록함

○ 8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터키 금융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111.0엔을,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미국-유럽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럽 은행권의 터키 익스포저[93]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하락한 1.156달러를 기록함

○ 9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일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여 111.8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브렉시트 협상 진전 기대, 이탈리아 재정문제 완화 기대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1.164달러임

92) 2018년 5월 독일 제조업지수가 시장의 예상치(1.1% 증가)를 웃돈 2.6%로 발표됨
93) 유럽 은행권 익스포저는 스페인 809억 달러, 프랑스 351억 달러, 이탈리아 185억 달러 등임

〈주가〉

■ 2018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439.07보다 하락한 평균 2,290.52임(〈그림 5〉 참조)

○ 7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미·중 통상마찰의 장기화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전월 평균주가지수 2,394.51보다 하락한 2,284.25임

○ 8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283.80으로 국내 기업실적 부진, 터키 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7월에 비해 하락함

○ 9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307.33으로 남북정상회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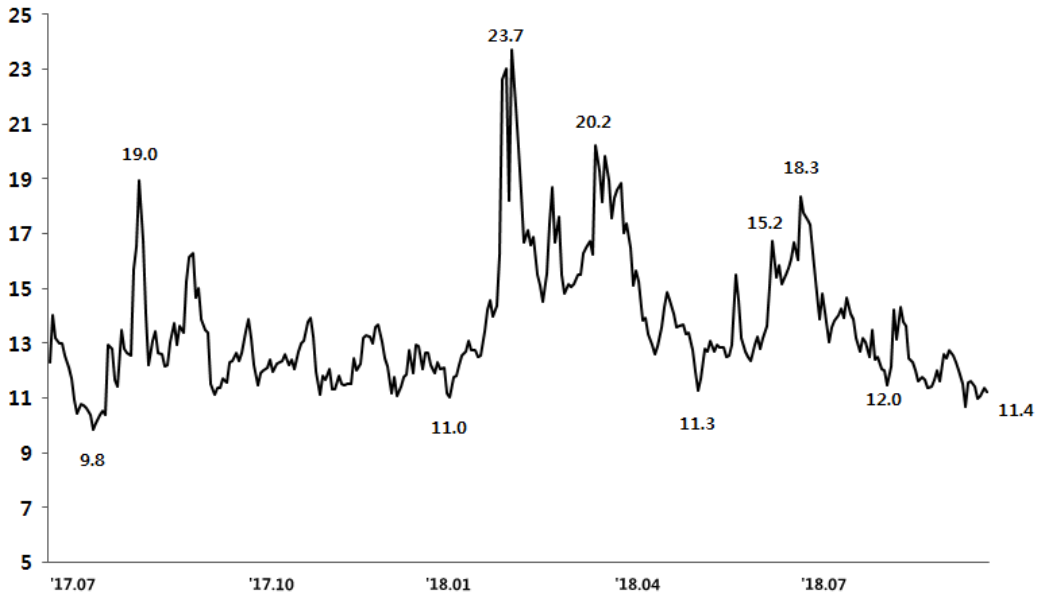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 2018년 3/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는 미·중 통상마찰 우려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및 터키 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18.3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를 보임(〈그림 6〉 참조)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8년 3/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18,885.45보다 하락한 17,513.64임(〈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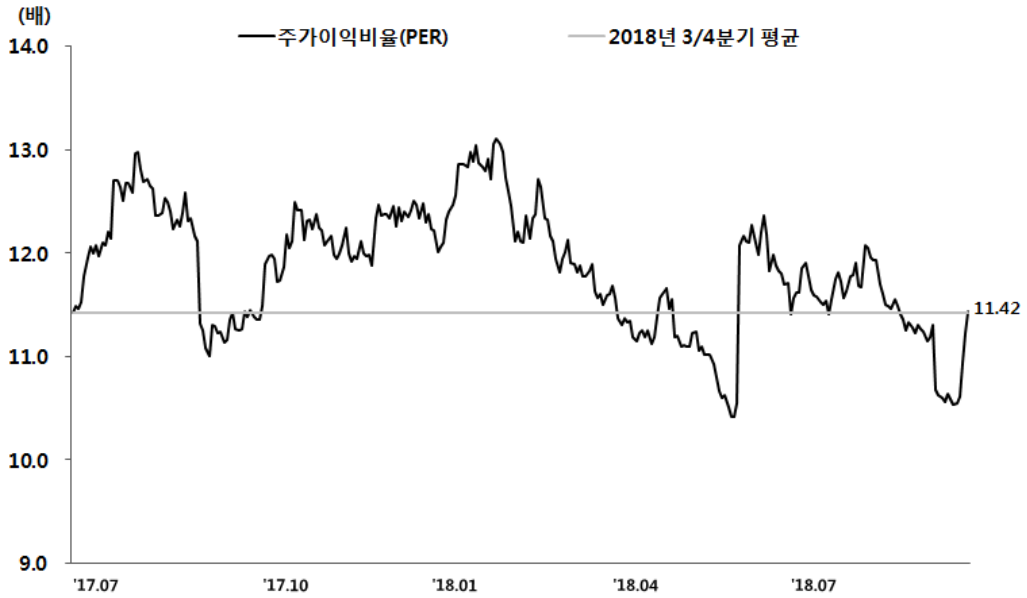
○ 2/4분기 경영실적 부진, ING 매각 등으로 보험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미국 금리 상승, 실손의료보험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KOSPI 보험지수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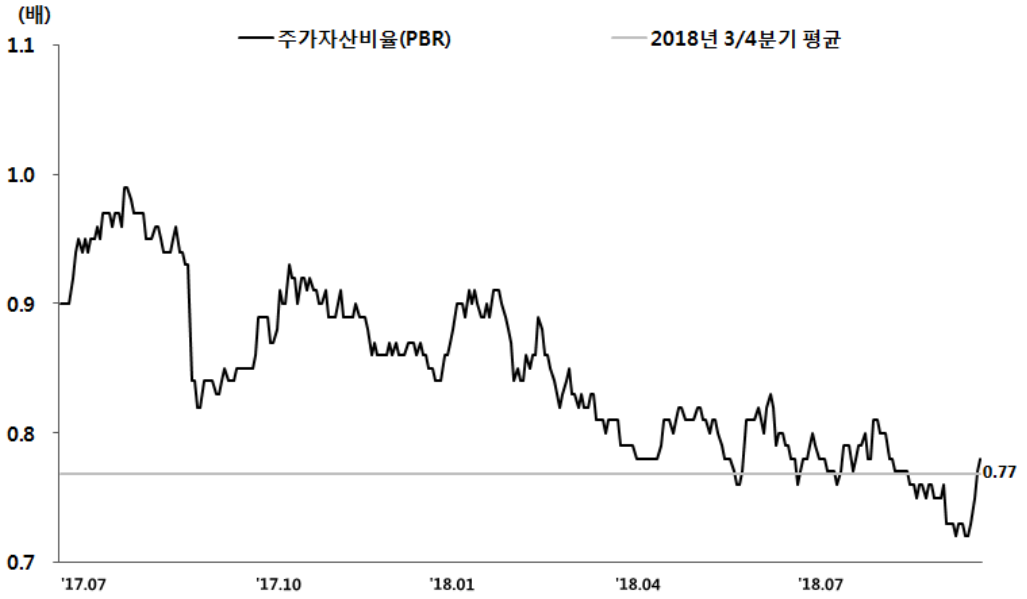
■ 2018년 3/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은 11.42로 전분기 평균 11.38에 비하여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77로 전분기 평균 0.80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 참조)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8년 3/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8년 3/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